

19대 총연 활동 및 주요 기사

Club News

Sunday, January 27, 2002

www.paily.com MC-d3

Korean American group marks milestone, looks ahead

By Susan Weidener

CHELTENHAM - As he looks to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sailing to Hawaii, Oh Young Le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hopes for much in the next century.

"We want to get more Korean Americans elected to office," he said. "We want more protection for our businesses."

A 60-year-old financier, Lee is serving a two-year term as president of the federation.

The organization, which has 170 chapters and represents 2.2 million Korean American members across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in 1978 to protect the minority rights of its members. Lee said the Philadelphia area is home to 70,000 Korean American citizens.

The Federation has raised \$4.3 million so far for the victims of Sept. 11, testament, he said, to the group's condemnations of terrorism. Eighteen Korean Americans died in the attacks on the World Trade Centers, Lee said.

The organization is organizing a 100th anniversary celebration for May 17 and 18 in Washington. Lee expects that an agenda for the future can be devised then, including an emphasis on organizing a grassroots effort to get more Korean Amer-

icans elected to office.

"We are against discrimination," Lee said. "We are Americans and we love America, but we also want to keep Korean culture alive."

Lee discussed his hope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 which he said has readily absorbed American culture - can cultivate among its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 appreciation for Korean culture.

"Responsibility to your parents, eating together as a family, and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are just some of the tenets of the culture that must be preserved, he said.

He said the federation promotes those ideas, as well as encourages Korean American Community across the nation to open Korean language and dance schools.

Lee came to this country in 1973 because he said America "offered both freedom and better choices."

For his part, his sons, now 30 and 31, have become successful in this country. One is a dentist. The other, a lawyer educated in the United States, practices with a law firm in Seoul.

Ko Kwang Han, another member of the federation, said Korean American own and operate more than 135,000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Yet, he said they are often discriminated against.

Han also came to this country in the 1970s. A businessman, he also lives in Cheltenham. There is a thriving Korean Community.

Han said the federation promotes the unification and South Korea and is pushing Congress to adopt legislation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at happened at 9:19 a.m. on Aug. 17, 1902, when 102 men and children left Kilauea across the Pacific landing in Honolulu. For more information, call 215-635-5411.

The Inquirer

TO SUBSCRIBE
CALL 1-800-222-

Ask about our Easy Pay
and never write a check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전국연합체 구성

지난 11월 27-29일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 서영석 총연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특별위원장(현 서남부 연합회장), 노명수 오렌지카운티 회장 등은 LA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레디슨 호텔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전국 회의에 참석하여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오렌지카운티, 하와이, 시카고, 아틀란타 등지에서 온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 추진 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전국 연합체를 구성했다.

본 전국회의 초 개최식에서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또 다른 100년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여 우리를 평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선배들이었다는 추억을 간직 할 수 있도록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특정 지역을 초월한 범 동포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 단합된 동포사회의 모습과 문화민족의 상을 미주류사회에 보여주기 위하여 각 지역 한인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그 지역 한인회장과 협조하여 조직을 확산시키는 전국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회식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체 연합 회장에 하와이 추진 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수고한 김창원 회장을 그리고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하고, 각 지역 추진 위원장을 Co-Chair 로 위촉하여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은 한

인 사회까지 전국 조직으로 확산하여, 다가오는 20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를 범 동포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세부운영은 총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실행하기로 했다.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은 서영석 미주 총연 100주년 이민 기념사업 특별 위원장을 미주 총연을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한편 총연 사무처에서는 각 지역 한인회별로 동 기념 사업을 독립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서영석 특별 위원장의 포괄적인 계획을 12월 4일 E-Mail 과 Fax 로 각 지역 한인회에 발송했다



이오영 총 회장의 이민 100주년 전국연합 조직을 위한 기초 연설하는 모습

최초 독립지사에게 의한 한국의회 장소 기념 현판식

1919년 4월 14-16일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된 독립지사들이 (Little Theater, 현 Play and Players Theater)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 를 열어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한 유적지와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1일 오후 2시 현판식을 거행하고 있다.



행사 전 관계자들의 모습



현판을 위한 현수막을 제거 하고 있다.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총연의 입장

재외 동포의 출입국 관계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위헌 판결에 대한 총연의 입장
" 재외동포 법은 존속해야 한다 "

가. 배경

재외 동포 동포 법은, 1983-85 년도 조도식, 강익조 총연 회장 당시 재외동포 특히 미주 동포 권익의 일환으로 본국에 동포 재산권인정,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편의, 전문인의 국내 취업보장 등을 이유로 2 중 국적인정과 동포청(당시 이민청)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후 총연을 위시하여 여러 계통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동포청' 대신 '재외동포 재단' 이란 기구를 창설했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이 2 중 국적 대신 '재외동포법' 을 제정했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중국과 소련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국제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과 중국으로부터 동포가 대량 입국 취업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재외 동포 의 범위를 대한 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 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법률 제정부터 평등권의 침해로 부당하다는 부담을 얹은 채 태동한 법률이다.

나. 위헌판결

헌법 재판소는 지난 11 월 29 일 재중동포 조 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2003 년 12 월 중 까지 법개정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다. 총연의 입장

현 동포법이 1948 년 이전에 중국과 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제외 시켜 차별화 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재중 동포 조 모 씨 등이 현 동포법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확대 혜택 쪽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외 동포들의 힘을 모아 추진하지 않고, 현 동포법을 1948 년 이후 이주한 재외 동포와 동참 아니면, 함께 침몰도 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청구라는 강경 쪽을 택한데 아쉬움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으나, 재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 조국이 암울했을 때 조국 독립을 위해 망명했던 후예들인 재중 동포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포 법 제정과정에서 동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입장과 동 법규정이 시행되어 완전히 정착하기도 전에 위헌이란 결정이 내려져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정부의 난감해진 입장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사회를 촉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국경을 초월한 민족 공동체란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힘들게 마련된 재외 동포 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기회에 위헌 요소를 제거 혈통을 위주한 재외동포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우려되는 본국의 노동시장 교란과 실업문제는 법개정과정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리라 보는 것" 이 총연의 입장이다.

아직 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나 의견을 몰라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 본국정부의 적절한 방법의 개정 조치 건의를 위한, 총연 내에 인권 및 법적 지위 특별 위원회(위원장 김경곤 변호사) 를 보강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동 시켜, 미주 동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로 본국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원칙

을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서북미 연합회, 서남부 연합회, 중남부 연합회 등 각 지역 한인회장들과 지난 12 월 6 일 의견 조율을 마치고, 이를 집약, 모국관계 여론에 건의문을 보내는 한편 동포사회에 재외동포법 개정 의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기자회견하는 모습

9.11 테러참사 희생자 돕기 성금 전달식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에서 미주한인 사회에서 911 테러희생자 돕기 성금 모금 한 것을,

집계결과 12월 7일 현재 \$ 4,250,945.41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미국의 위기 상황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데 일조를 했다.

각 지역 한인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미 간계기관에 접수 시키고 달라스 한인회에서 총연에 보내온 금액 \$ 24,683.10을 RED CROSS 에 전달 했다.

이 자리에서 RED CROSS 의 워런 메릭은 "미주 한인사회의 인종을 초월한 참여와 거금의 헌금" 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본 모금 총액 집계 상황에 관한 서신을 미 부시 대통령과 상원 의원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911 집계 상황을 미 언론 기관과 한국 언론기관에 보도했다.



이오영 총회장이 모금액을 "RED CROSS" 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미주총연 사무처를 방문한 'Red Cross' 의 워런메릭과 이오영 총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지와 인터뷰

지난 1월 21일, 필라델피아 지역 유력일간지인 The Philadelphia Inquirer 에서 Susan Weidener 기자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총연) 이오영 회장 사무를 방문, 미주 총연의 현황과 역할, 주류사회참여를 비롯하여 미주 한인동포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9.11 사태성금 모금 현황 (모금성금 총액 4백 28만불 2001년 12월 30일 집계) 에 관해 폭넓은 기자회견을 가짐으로 미 주류 사회에 총연과 한인 동포사회를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주 총연 이회장은 9.11 사태 재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미 부시 대통령과 파타키 뉴욕 주지사, Rick Santorum, Joseph R. Biden, Jr., Paul S. Sarbanes 등 3명의 상원의원으로 부터 감사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Susan Weidener 기자와 이오영 총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



THE WHITE HOUSE
WASHINGTON

November 19, 2001

Mr. Oh Young Lee
President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Suite 300
1135 West Cheltenham Avenue
Melrose Park, Pennsylvania 19027-3008

Dear Mr. Lee:

Thank you for writing about the acts of war committ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In the face of this evil, our country remains strong and united, a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to the rest of the world.

Our government continues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Our intelligence,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communities are working non-stop to fin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We will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errorists who committed these acts and those who help or harbor them.

We must remember that our Arab and Muslim American citizens love our Nation and must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Americans of every creed, ethnicity, and national origin must unite against our common enemies.

Since these terrible tragedies occurred, our citizens have been generous, kind, resourceful, and brave. I encourage all Americans to find a way to help. Web sites like LibertyUnites.org can serve as a resource for those wanting to participate in the relief efforts.

I deeply appreciate the support and prayers of so many Americans. May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America.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GWB", written over a white background.

George W. Bush



STATE OF NEW YORK
EXECUTIVE CHAMBER

ALBANY 12224

September 28, 2001

GEORGE E. PATAKI
GOVERNOR

Dear Mr. Lee:

September 11th will always be remembered as a day when a dark cloud descended across America. The unspeakable terror that struck New York City -- and America -- will stand as one of the darkest moments in human history.

In the wake of the terrible destruction and loss of life at the World Trade Center, the spirit of New York shined through with the extraordinarily courageous and selfless efforts of the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and other rescue workers who put themselves at great risk to save others. From this worst of moments, we saw the best of New York. Many of them gave their lives that day, but their memory and their example have been an inspiration not just to all of us in New York, but to people around the world. Those still on the scene continue to work under the most difficult of circumstances without wavering. They will always have our heartfelt gratitude and appreciation for the difficult and dangerous jobs they do with such dedication and bravery.

And the many thousands of people throughout our State, our Nation and the world who have offered their assistance and shown their concern, compassion and support in the days since this tragedy have our heartfelt thanks as well. The outpouring of support from one end of the globe to the other has been simply overwhelming, and the people of New York have been deeply touched by your generosity and kindness. We will never forget it.

The forces of evil that committed this atrocity have caused pain that will last for generations, pain that has claimed the lives of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But evil never prevails. Freedom, despite its vulnerabilities, will always prevail. Our spirit is strong and our resolve is unshakeable. Make no mistake about it -- we will not just survive this disaster. Nor will we simply overcome it. We, the people of New York, will join together, united in strength, and lift New York to its greatest day.

On behalf of all New Yorkers, thank you for your support, prayers and encouragement.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the people of New York, and may God bless America.

Very truly yours,

Mr. Oh Young Lee
President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1135 West Cheltenham Avenue, Suite 200
Melrose Park, Pennsylvania 19027



printed on recycled paper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 총연 방문



이오영 총회장과 권병현 대사가 간담을 나누는 모습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은 2월 13일(수) 오후 2:00-4:20 까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총연) 이오영 회장을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 사무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사는 이오영 총연 회장과 함께 미주 한인 동포들의 실정 파악은 물론, 2월 22-24일 달라스에서 개최 될 총연 임원, 이사 확대 간부 회의와 5월 17, 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치 포럼을 비롯하여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의 방향, 2002년도 세계 한인회장대회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는 등 2002년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동포재단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권 대사는 방미 목적을 구정 연휴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자는 목적아래 실시하고 있는 '한상 네트워크 구축 작업'과 '재외동포센터 건립 모금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재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오영 회장에게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오영 회장은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해 납득할만한 건립 의의와 목적을 제시한 후,

- 1) 상품 가치가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
- 2)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 3) 재외동포센터 운영에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경우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22-24일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2차 확대 간부회의에 동포재단 관계자를 파견, 동포센터 건립에 관한 세부 계획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에 대해 권 대사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정미호 필라델피아 신임회장, 최주환 몽고메리 카운티 신임회장이 배석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언론사 기자들과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권 대사는 "정부가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해 5억 원의 증자돈과 함께 총 4,000-5,000억 상당의 세종 연구 단지 내 3만평의 부지를 내놓아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만큼 건축비 500억 목표액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재외동포 모두가 동참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해 벽돌 한 장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모금 운동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로부터 권병현 이사장, 정미호 필라 한인회장, 이오영 총회장, 최주환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장

한국전 참전비 준공식

지난 22일 필라 펜스랜드 인근 38선 광장 (38th Parallel Place) 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준공식에는 중풍에 걸려 절뚝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전사자의 명단을 쓰다듬는 노병, 손자의 팔에 의지해 지팡이를 짚은 전쟁 미망인, 낡은 전투복에 녹슨 장총을 둘러멘 노인, 휠체어에 몸을 실었으나 고개만은 뺏뺏하게 세운 베테랑들이 52년 전의 악몽을 되새겼다.

이날 600 여명의 베테랑과 그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존 스트리트 필라 시장은 "필라의 모든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이곳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졸업자격이 주어질것" 이라고 말했다. 67 만 5000 여 달러의 공사비중 50 만 달러의 예산을 기부한 스트리트 필라 시장은"그 동안 필라 에 어린이들이 찾을만한 기념비가 없었는데 이제 훌륭한 교육 전시장이 마련 됐다" 면서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날 한국에서 찾아온 백선엽 장군은 어눌한 영어지만 "미국의 희생과 지원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 이라면서 두 손을 들어 "Thanks you, America" 를 외쳤다. 영동설한에서 한번쯤은 동상에 걸렸을 법한 노병들은 백 장군의 진심 어린 감사함에 일제히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기립 경례를 올렸다. 이날 한국측은 양성철 주미대사, 최원일 뉴욕 총영사, 이오영 미주총연 회장, 정미호 한인회장, 정학량 평통 회장등 50 여명이 참석했다.



좌로부터 이오영 미주총연 회장, 조원일 뉴욕 총영사, 양성철 주미대사

조선족 자치주 50주년 기념 행사

지난 9월 1-9일 조선족 자치주 5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다



기념 행사장의 모습



조선자치주 박물관의 모습

동남부 연합회 이, 취임식

이오영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저녁 7시, 아틀란타 소재 용수산 식당 연회실에서 개최된 동남부 연합회 제 18 대 김영오 회장과 제 19 대 이석희 회장의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날 이석희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임창빈 미주 상공인협회 총회장, 김백규 미주 총연 중앙상임위원 및 아틀란타 한인회장 그리고 아틀란타 총영사를 비롯 150 여명의 단체장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 날 이석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체성 확립, 홈페이지 구축,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등 중점 사업을 소개하며 의욕을 나타냈다.



이오영 총회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의 모습

총연 면세 혜택 번호 취득

19대 에서 비영리 단체를 재 정비하고 면세혜택 번호 (EIN: 56-2264965)를 획득 했다.

제19대 미주 총연은 2001년 12월 N. Carolina 주 정부에 비영리 단체를 등록한후, 2002년 9월 미 연방 세무청(IRS) 에서 면세혜택 번호를 획득했다.

따라서 2001년 12월 이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납부한 회비나 각종 Donation은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Web Site 미주 총연 소유

한글 및 영어 Web Site를 구축하여 Net-Work 기틀을 다졌다

또한 자립재정의 기초를 위해 단체로의 발전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길을 열어 놓았다.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USA

www.Koreanfedusa.org

www.Koreanfedusa.net

www.Koreanfedusa.org/eng

www.Koreanfedusa.net/eng

여중생 사망사건 기자회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오영 총회장은 지난 12월 12-13일 대구경북대학교 주최 "세계화 시대 한민족의 위상과 정체성"이란 주제로 개최된 '세계학술 회의'와 이 회장의 모교 수원 수성 고등학교 장학금 모금에 참여하고, 총 동창회에서 지급하는 "자랑스런 수성인"이란 상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 한 때와 같이 하여 "지난 6월 의정부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모국에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어 반미 시위를 급선회할 우려가 있어 12월 13일 오후 2시 20분 미주 총연의 입장을 밝히는 YTN TV와 생방송 인터뷰를 한데 이어, 14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두 여학생 사망사건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계류중인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미주 총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내용은 이오영 회장이 이웅길 수석 부회장을 대동 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의 견해

- 여중생 심미선, 신호순 사망 사건에 관련하여-

저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입니다.
저는 12월 12일 대구 경북 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잠시 모국에 귀국하였다가 심미선, 신호순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점점 확산되어 결국 오늘 저녁 10만 촛불 추모 행사로 이어진다는 소식을 접

하면서, 우선 13세라는 어리디 어린 두 여학생의 죽음에 200만 미주동포와 함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아울러 어린 두 소녀가 무참히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심한 분노도 함께 느낍니다.



여중생 사망사건 기자회견 모습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 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정부 관계당국이 초등대응을 어떻게 대응했기에 국민적 공분이 이토록 극에 달하게 되었는지?

*우리와 우호를 다짐하던 동맹국인 미 당국이 우리의 민권과 국민적 정서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어떻게 가해자 전원이 무죄라는 판결이 될 수 있었는지?

*현 SOFA 규정은 1967년 발효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2년 전 개정된 것이라 하는데, 어찌 하여 우리 정부 당국은 당시 이러한 독소 규정을 방치해 두었는지?

*2년 전 전문인이 참여하여 보다 지혜롭게 본 규정을 개정했다라면 이러한 억울한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지?

결국 정부를 불신하고 국민의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분노한 시민들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 뛰어 나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움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 지길 원합니다.

1. 우선 이세상에 왔다가 피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미선이와 효순이'의 넋을 위로하고,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밤잠 이루지 못하여 건강이 쇠잔해져 있을 두 소녀의 부모님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바라며, 미 당국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우의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미군의 통수권자인 미 대통령은 어린 두 소녀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고 우회적인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과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며
2. 우방국인 한,미 당국은 적극적 의지로 대등한 위치의 SOFA 규정을 개정하여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3. 대규모의 촛불 시위는 우리 국민의 심정과 분노를 전달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한,미 우호관계에 해를 끼치는 반미감정으로 치달지 않는 범위와 방법으로 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 내에서도 반한 기류가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4. 지금 미국에는 100년전 부터 한인 동포들

이 눈물과 피로 얼룩진 초기 이민생활을 극복 하면서 현재 200 만이란 숫자의 한인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이민 정착 안정기에서 주류 사회 진입 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민초기 사탕수수밭 노동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민 선배들은 조국이 일제에 국권이 상실되었을 때 목숨 바쳐 독립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자금을 모아 조국광복에 힘을 모았으며, IMF 와 같은 경제위기에 조국의 경제회복에 적극 동참했고, 모국이 '루사' 태풍과 같은 재난에 처해 있을 때 의연금을 모금하며 아픔을 같이하는가 하면, 모국의 중요 무역 파트너와 송금으로 모국의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2년 4.29 LA 흑인 폭동 시 주로 한인 동포가 공격 당하여 한명의 사망자와 4억불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우연인지 모르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반미 사상이 고조되어 '양키 고우 홈'이란 구호가 난무 하던 때와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 9.11 항공기 납치 자살 공격의 주범이 알카에다 라는 테러 집단에게 수 천명이 죽는 비극을 당했을 때 자살 테러범이 아랍계 민족이란 이유로 미국의 일부 과격분자에 의해 선량한 인도인이 아랍계로 오인되어 저격을 당하거나 아랍계의 상점이 파괴되는 핍박을 받은바 있으며 그 핍박은 아직까지 직간접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러한 예를 미루어 보아 반미 반 한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미주 한인 동포들은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

게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상황이 오면 북한과 군사적 힘의 균형을 잃
게 되어 안보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될 뿐 아
니라, 국내의 외국 자본은 썰물같이 빠져
나가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등은 깊이 생각해야 할 일들
입니다.

6. 우리는 미주에서 미 당국에 우리민족의 심
정과 분노를 미 주류사회에 바로 알리고 미

당국에 SOFA 규정이 정당하게 개정되도록
촉구 할 것입니다.

7. 이제는 우리 모두 공분을 가라 안치고 하루
속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총화를 이루어 21 세기를 주도할 민족
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새롭고 안정된 조국
건설에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관하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입장을 밝힌다.

작년 11월 29일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 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는 ‘재외동포 출입국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차례 600만 재외동포 이름으로 또는 200만 미주동포 이름으로 정부 및 정당 관계부처 와 16대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관계당국은 물론, 새로 당선되시는 16대 대통령에게 200만 미주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 드리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모국에서 재외 동포의 고급두뇌를 활용하고, 모국내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을 보호 하고, 거주국에서 자유롭게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여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귀소 본능의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 하여 애국심증진을 고취 시킨다는 등의 깊은 뜻과 열린 마음으로 제정된 현 재외 동포법은 조속히 ‘헌법 불합치된 사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존속 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중국과 외교적 마찰 때문에 ‘재외 동포 법’ 개정을 망 서리는 것은 이번 SOFA 규정을 미국측과 외교적마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측만 유리하게 만들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과를 가져온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주권국인 모국이 자국의 민족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자국 법을 개정하는데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의 외교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결과로 오해되거나, 중국에서 까지 무시당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3.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서면 발송

존경하는 미 부시 대통령님!

저는 미주 한인 200 만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입니다.

우선 세계평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시 대통령님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6 월 한국 의정부에서 발생한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정확히 보고 드리며 아울러 2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심미선, 심효순 이란 어린 여중학생을 사망케 한 미군 병사가 무죄평결을 받은 데 대하여, 지금 한국국민들은 "어린 여학생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국민적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 분노는 점점 확산되어 14 일 전국적으로 30 여 만 명이 참여하여 여학생 죽음에 대한 추모와 미국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로 이어 졌습니다.

마침 지난 14 일 부시 미 대통령께서 김대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한 데 대하여 극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지는 듯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0 여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의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으나, 분노한 많은 국민은 아직도 "부시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 하며, "현 SOFA 규정을 주권국인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등하게 개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번 어린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많이 생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시위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미국이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 반미감정이 예기치 못하는 방향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님!

저는 한·미 관계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사회의 대표이자,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현재 분노한 한국 국민의 정서를 앞에서와 같이 가감 없이 보고 드리면서, 건의 드리옵기는 다시 한번 "한국의 어린 소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부시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심심한 애도 및 사과를 하심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미국 국가의 강력한 지도자로 강력한 리더쉽과 인권을 존중하시는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미국의 대통령상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실 때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미 관계 당국이 SOFA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한·미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본 규정이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서 한국이 미국과 진정한 우방국가라는 것을 재확인하시고, 손상 당한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 시켜주심으로 상호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하시는 모습을 만천하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과 부시 대통령에게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 년 12 월 14 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영어 원문

Honorable President George W. Bush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00

Dear Mr. President,

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 respectfully write to you regard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rising from the unfortunate deaths of the two Korean children.

First, on behalf of all Korean-Americans, I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your enduring commitment to maintaining world peace and your leadership in the ongoing war against terrorism throughout the worl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joins in the prayers of all freedom-loving communities in support of this important task and we pray that God blesses you with the perseverance, strength and wisdom to carry this struggle forward.

Especially during these times, th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under constant scrutiny by people across the globe. It is my deep desire and hope that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is maintained and the relationships with our allied nations strengthened. In this regard, as you can appreciate, we, as Korean-Americans, have a special interest in the strong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ver the many decades and I take this opportunity to relay as objectively as possible the sentiment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hopes that you would give further consideration to the recent events.

As you know, the recent acquittal of the two American soldiers who caused the deaths of the two young school children, Mi-Sun Shim and Hyo-Soon Shin, has caused a nationwide uproar in Korea. Demonstrations and protests for the apparent lack of accountability have been occurring with more frequency and passion, with the latest gathering of over 300,000 people throughout Korea in a candlelight vigil on December 14th. The main theme of such protests focus on the fact that no one is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untimely deaths of these two innocent girls. While the tense atmosphere has been somewhat eased since your telephone call to President Dae-Jung Kim to relay a message of deep sympathy,

there is still an overwhelming sentiment among the Korean people that a public apology is necessary and that someon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deaths. Furthermore, many Koreans feel that the current SOFA needs to be amended to reflect the fact that Korea is a sovereign nation and an equal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While there are undoubtedly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lead to the acquittal of the two soldiers,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is matter was handled in a fair and objective manner. I fear that unless this matter is resolved, there will be an increasing level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and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be unnecessarily strained. This should not be allowed to happen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shared a deep friendship that was made possible by the sacrifices of both countries to preserve freedom.

Mr. President, as a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and as an individual U.S. citizen, I strongly hope that this matter will be resolved. To achieve this, I humbly urge you to consider making an apology to the Korean people and to express your condolences once again; as such a small act on your part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eople. While those in foreign lands no doubt view you as a strong leader, perhaps this i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how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world, that you are also compassionate and fair as both the President and Commander and Chief. In addition, I urge you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possible amendments to the SOFA. While Korea has undoubtedly received many benefits from the United States' forces being in Korea, some effort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show that the United States truly views Korea as an ally and partner. Any effort in this regard will allow the healing of the damaged pride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am sure you will agree that this would benefit both nations.

I am truly grateful for your time and hope that you give favorable consideration to this matter. May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America.

Sincerely Yours,

Oh Young Lee

President,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미주총연 성명서 발표

(북한 핵 동결 및 여중생 사망을 계기로 확산되는 반미시위 고조에 따른 미주 총연의 입장)

성 명 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지금 모국에서는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반미적인 시위와 행동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동결을 파기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2 월 13-14 일, YTN TV 생방송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과 부시 미 대통령에게 건의문 (총연 02-19-262/ 회견 내용은 총연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을 발송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미주 한인들의 중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미주 한인 동포사회는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 관련 조치가 민족의 평화는 물론 국제 사회의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으로써 이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전쟁 요인이 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미국은 인내를 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대화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두 여학생 사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사망은 있으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적인 행동은 한미 양국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미주 동포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미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모국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현재의 SOFA 규정이 양국 간의 형평에 어긋난 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미주 동포사회도 이의 개정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5. 미주 동포사회는 진정한 민족의 총화로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적 영원을 실현하겠다는 기본정신아래 남북한에 진행된 제반 사업들이 보다 성숙한 국제 관례와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지속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년 12 월 30 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 장 이 오 영

중앙펜실베이니아 한인회 신구회장 이, 취임식

미주총연(이오영 회장)은 최주환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장과 김현수 회장 특보를 대동하고 중앙펜실베이니아 한인회장 신구 이 취임식 및 송년 파티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CLARION HOTEL CONVENTION CENTER 에서 뉴욕 총영사를 대신하여 맹달영 동포담당 총영사를 비롯하여, 350 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었다.



중앙펜실베이니아 한인회장 신구 이취임식 및 송년 파티에서 축사하는 모습

이오영 총회장은, 지난 한해는 월드컵 4 강이라는 신화로 애국문화를 창조한 기쁨과 16 대 대통령을 뽑은 국민적 축제가 있었으며, 어린 두 여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애도를 표하며 국민적 분노로 반미시위 확산 우려와 북한의 핵 동결파기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아라크의 전쟁위기 촉발에 우려가 증폭되는 한해 였다고 지적하고, 계미년 신해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말끔히 해소되는 축복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역 한인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 동포사회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를 구심 대표단체로 협조하고 단결할 때, 200 만 재미동포의 결집된 힘이 미 주류사회에 깊이 파고들 원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의 주역으로... 의지 다져"

100년전 102명의 이민 선구자가 도착한 역사의 현장 호놀룰루에서 기념행사 성대히 완료..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회장 김창원, 명예회장 이오영, 한국측 회장 이종찬)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이오영)이 공동으로 펼치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1월 12-14일 간에 성대하게 펼쳐졌다.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앞으로 1년 내내 미주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계속될 이번 행사는 100년 전 우리의 용감한 102명의 이민 선구자가 하와이 사탕수수 밭 중노동으로 이민이 시작되어 오늘날 200만 미주 한인 공동체가 이룩되기까지 선조들의 노고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조국이 일제 침략 하에 식민지 되었을 때 조국 광복을 위하여 당시 노동 임금의 20% 이상을 독립자금으로 흔쾌히 헌납했던 선조들의 지난 업적을 기리며, 앞으로 100년 간 우리들이 펼쳐나갈 미래

를 설계하자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10억(재외동포재단 제공)원의 보조금과 각계 각층의 금액 미상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에서 미국가, 애국가, 선열들에 대한 묵념에 이어 양성철 주미 대사가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 박관용 대한민국 국회의장, 린다 링글 하와이 주지사, 한명숙 여성부 장관,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로날드 문(이민 3세) 하와이 대법원장의 선조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피눈물나는 이민 현장의 내용을 담은 기초 연설을 끝으로 개막식을 마쳤다.

이날 미주 총연 회장이자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의 명예 회장이기도 한 이오영 회장은 「100년 전 이민 선조들이 도착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모여, 지나나 100년 간을 조명하고, 앞으로 100년을 설계함은 참으로 뜻 깊은 일로써, 현재 지구상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위험 수위 고조 및 북한 핵무기 개발 동결 일방적 파괴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되는 분위기가 금년에는 말끔히 해결되고 한미 우호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는 한 해이기를 기원하고, 이번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 동포 사회가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180개 한인회와 200만 동포사회는 미주 총연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성숙한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자고 강조했다.

미주 총연 팀은 14일 마우이 이아오 계곡에 고영수 회장이 문화관 제막 위원장으로 수고한 마우이 이아오 계곡 한국 문화관 제막식에 참석하여 개막

식을 빛냈다. 지난 3년 간 전 하와이 회장(현 총연 부이사장) 고영수 건립위원장과 조태룡 건립 이사장의 각고 끝에 완공된 "이민정과 문화관"이란 건물을 이민 선조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역사의 현장으로 중국, 일본관이 들어서 있는 시립 공원입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후손 대대의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줌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김민하 평통 수석 부의장은 김대중 대통령 표창을 고영수 위원장에게 수여했다.

경과보고, 하와이 총영사(부 총영사 대독), 김민하 민주 평통 수석 부의장, 이오영 총연 회장, 김재숙 민단단장, 박병헌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행된 이번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는 준비 위원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여기저기 엿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와이 로컬 중심의 행사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만찬에서(왼쪽부터 하와이 시장, 총연회장, 전직 주지사, 앞줄 우측 두번째 양성철 대사) 주요인사들과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김창원 회장내외와 함께한 이오영 총연회장(100주년 명예회장) 내외

이 날 행사는 테이프 절단에 이어 박현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고영수 위원장 인사, 조태룡 이사장의

한 미 관계는 반세기에 걸친 안보동맹국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주권국의 자존심을 회복 하자는 차원의 시위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을, 극히 일부 몰지각한 부류에 의해 반미 감정으로 치달도록 시위를 확산해 나가는 분위기와 이를 오인하여 미 주류 사회에서 반한 감정이 싹터, 미군 철수 고려를 언급하는 심각한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미 관계의 우호적인 동맹관계 지속을 강력히 희망한다. 북한의 핵 동결 파기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행한 일로써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주총연 회장실의 모습

그리고 모국 국민 대다수와 200 만 미주 한인 동포들은 한미간의 우호 동맹 관계 지속을 원하며,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1 월 23 일 미 부시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원에게 발송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의 내용과 같다.

Honorable President George W. Bush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RE: Korean-Americans' standpoint on the anti-American sentiment following the death of two junior high school girl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ituation.

Dear Mr. President,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is a service organization representing two million Korean Americans and 180 Korean associations in the 50 States. This letter is written in hopes to inform you and summarize the general attitude of Korean Americans regarding the anti-American demonstrations following the death of two junior high school girl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ituation.

1.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declaring February 1, 2003 as the anniversary of the 100th year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and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and the positive influence that the two million Korean-Americans have in our society over the past century.
2. The rallies which began after the death of two Korean girls are a great concern. They initially were to ask for a public apology from President Bush, ask for rationally amendments to the SOFA agreement, and to have involved people take responsibility for the tragedy.
3. The influence of a few unreasonable rebels has escalated these rallies into Anti-American demonstrations, despite the initial intention of the citizens. We are concerned over these anti-American demonstrations and are taking precautions against them. The Korean government, also, is trying to temper these rallies.
4.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hould not be tolerated. We ask that the U.S., with patience and persistence, try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5. The citizens of Korea and Korean-Americans are grateful to the U.S. for the 40,000 lives that were sacrificed during the Korean War. It is the belief of the majority of Korean citizens and the two million Korean Americans that the strong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not be affected due to the recent rallies. More importantly, we have no desire to establish any anti-American sentiment or to have the US troops withdraw from South Korea.

We hope that through this opportunity, American-Korean relations will become deeper and closer. Thank you for your tireless efforts in preserving freedom. You have our faith and support.

Sincerely,

Oh Young Le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